

감기약 처방에 30만원!

대한의사협회가 슈퍼판매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병원협회가 원내 외래약국 설치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정부가 슈퍼판매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시민단체가 슈퍼판매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답은 똑 같습니다,

청와대와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주장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영리의료법인)을 목표로 슈퍼판매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내에는 정상혁 보건복지비서관, 박형욱 행정관, 이종규 서기관 등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만 의사 출신 3명이 근무중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사위 사돈도 의사라고 하니,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한마디로 슈퍼판매는 청와대와 의협과 병협 그리고 대부분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의사출신들이 임원인 70~80%의 시민단체들의 합작품이라 여겨지는 이유이지요?

※국민단체라고 국민을 속여서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사들의 단체와 단체 설립의 본래 취지마저 저버리고 이익을 위해 포섭된 단체들로,

-본 내용은 일체의 허위도 없이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떠온 내용임- 초기 25개 단체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찬성하며 추진하는 단체임

제일 중요한 건강복지공동회의 입니다.

구성위-상임대표 박양동.공동대표 김광명.(의료와 사회포럼 초대고문,

한양대학교 신경외과교수,바른시민회의 의료선진화특위위원장)

공동대표-조중근(장안대 경영학과교수,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

기업연구회회장,가정상비 약국외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공동
대표)

조동근(의료와사회포럼 초대공동대표,명지대경제학과교수,바른

사회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소장)

초대공동대표-조남현13개 시민단체가 모여서만든 우파성향의

의료선진화주장.의료와 사회포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메디칼아이즈멘즈포럼,바른사회보건의료선진화특위.한국복지

문제연구소,국민건강수호연대,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뉴라이트의사연합,선진자유연합,약과 사회포럼,(사)연구소

2020통일한국 등으로 모두 의사들과 직간접적으로 뜻을 합

게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입니다.

청와대와 의사들, 그리고 의사 사주로 시민단체를 가장한 모임들이, 서울시 의사협회회장이었던 경만호회장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보건교사가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의약품을 투여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6조를 삭제하라고 주장했던 시절과 달리,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슈퍼판매를 하자고 갑자기 돌변한 속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리의료법인 설치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슈퍼판매를 강행하게 되면 약국에는 판매할 약이 없게 됩니다.

외국의 전문의약품 60%대 일반의약품 40%의 비율과는 달리 한국은 전문약이 82%일반약이 18%인데, 이 중 경실련(의사단체)이 주장하는 약은 일반의약품의 77.7%로 이 약이 슈퍼로 다 빠져 나가면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한 약은 4% 밖에 안 남게 되는데,

한 마디로 약국 문닫고 의사 밑에 종속되어 의사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이죠!

병원은 외래약국 설치해서 망해서 문 닫을 약사들 짝 임금으로 고용하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주사제와 약 값을 뺏겨서 환자들에게 바가지 씌웠듯이, 약사들까지 병원에 고용하고 과다 청구를 하게 되면, 정부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는 바가지 약 값을 누가 알겠는가?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통해 2010년 한 해에만 3892명이 총 48억 원의 진료비를 돌려 받았는데, 비급여처리 등의 부당청구로 돌려받은 돈만 35억60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다 청구로 돌려받지 못하는 병원비에 비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기에다 청와대내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의사3명이 정책을 결정하고, 여기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동참했으니, 영리의료법인으로 가는 길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요, 이제는 곧 모든 것이 의사들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여 영리를 취하게 될 것이니 대한민국의 병원들은 죄다 상업적 영리를 추구하는 병의원들로 탈바꿈해서 돈에 굶주린 하이어나와 같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감기약 처방 한번에 30만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들의 모습입니다.

병원은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받을 수도, 이익을 냈다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를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며 광고를 하고, 이익을 내면 배당도 하는 상위제약사의 매출이 5000억인데 반해, 병원들이 거의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왜 일까?

※2010년 전국 대학병원의 매출을 보면

상위 5위중 1위 가톨릭CMC병원 1조 3107억원

2위 서울 아산병원 1조 2030억원

3위 세브란스병원 1조 1109억원

4위 서울대학교병원 9659억원

5위 서울 삼성병원 9531억원

6위~10위 병원들 역시 5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의사이면서 병원들의 환자에 대한 지나친 폭리와 상업적 갈취를 하는 병원들의 실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인센티브의 덫에 걸려 환자들에게 지나친 다빈도 약 처방과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송윤희 감독이 직접 제작하고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촬영한 다큐멘터리영화 "하얀정글"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과잉진료와 과다청구로 정부로부터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진료비수가를 받고 환자들에게 비급여 처리로 알 수 없는 청구비를 요구해 주머니를 챙깁니다.

그리고 제약사로 부터는 처방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아 왔고, 제약사로 부터는 수십억에 달하는 의약품을 단돈 1원에 낙찰 받고, 거기에다 정부로 부터는 저가구매로 수십억~수백억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돈으로 상당수의 의사들은 고급외제차에 더불어 상류층 생활을 즐기고, 그의 자식들에게는 무직인데도 30살에 통장에는 현금1억원에 '쉐보레 코르벳'이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등의 국내에 단 한대밖에 없는 차량을 몰고 다니거나, 페라리 F355와 포르세 카레라S, 아우디 R8, 벤츠 SL55 AMG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재산을 뺏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듯이,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외래약국을 설치하고 약국의 약을 뺏어다 슈퍼에 넘기기 위해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25개의 시민단체를 만들거나 뒤에서 조종하며, 정부와 짜고 일반약 슈퍼 판매를 국민편리를 해야 된다면,보건교사에게서 일반의약품을 뺏듯이, 또 다시 약사에게서 뺏으려 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국에서 약을 뺏고 약국도 뺏고 해서 의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 들이 짐작 하다 시피, 영리병원입니다!

비영리병원들의 매출이 이미 1조원대를 넘어가고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최상류층 생활을 하는데, 상업적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게 될까요?

아마도 자신들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평생 놀고 먹고도 남는 재산들을 물려주게 되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7년 11월 KBS방송국의 미녀들의 수다에서, 미국 유학생 윈터가 “미국에서 독감으로 보름간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5만달러(당시 5000만원)나 청구됐다”면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옹호한 것이 화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한마디로 감기약 처방 한 번 받는데 30만원에 병원에 몇 일만 입원해도 병원비가 수천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내야할 의료보험료는 지금의 월 몇만원에서 일년에 천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명박정부 초기 정책이 무엇인지 기억 하십니까?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였습니다, 서민의 건강을 통째로 보험업계와 의료카르텔

에 넘겨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며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방송언론과 기재부 박재완 장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을 목표로 슈퍼판매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사들이 합세해 시민단체를 가장하고 나선 것과 뜻을 같이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 졌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쌓여만 가는 재정적자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고, 이를 건강보험 민영화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보험업자에게 떠넘기며 병원들의 민영화로 비영리병원에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 수입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을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의사3인을 대통령직속 보건복지비서관실에 내정하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기재부장관에 내정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수언론들이 가세하여 청와대의 비위를 맞춰 가며 의도적으로 약국때리기에 앞장섰고, 광우병과동 때 처럼, 외국의 슈퍼판매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서 슈퍼판매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나리오는 너무나 뻔한 것으로, 당연지정제 폐지가 정당하다는 당위성을 방송 언론들이 나서서 왜곡 보도할 것이고, 병원내 외래약국설치도 국민편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주장할 것이며, 여기에 의사들이 뒤에서 조절하는 시민단체들이 맞장구 치며 동조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 결과 의료민영화가 되어 영리병원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감기약처방 한 번에 30만원 독감으로 보름 입원하면 5000만원, 그리고 돈 없으면 슈퍼에서 진통제나 종합감기약 열심히 사먹으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의사들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민간보험회사에 발목 잡혀 살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아서 저 보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열심히 일해도 재정적자에서 허덕이는 인구가 530만 명이랍니다.

거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소득 이동성의 변화 추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간 비율은 31.1%였으며, 빈곤층 중 상위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나머지 68.9%는 계속 빈곤층에 머물렀다. 빈곤층의 계층 상승 비율은 1기 43.6%, 2기 43.5%였지만 3기(31.1%) 때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이야기 해서 지금의 경제 체제에서도 여러분 10명중 7명은 몇 년이 흘러도 계속 가난에 찌들어 살게 되는데, 의료민영화가 되면 적자가 더 심해져서 빈곤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여러분 10명중 9명은 계속 빈곤층에 머물게 되며, 의사들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갈취한 돈으로 자식들에게 수억원짜리 차들을 사주고 외국에 있는 별장에 가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잘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셨다면 과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보시는 방법 밖에 없으며,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시게 될려면, 그리고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줄일려면 지금의 공보험제도를 포기하시면 안될 것이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야 되며, 병원내의 외래약국설치와 슈퍼판매를 결사적으로 막아야만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병원 약사님 들에게 고함

병원근무 하시는 약사님들 대한약사회가 여러분 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지 마세요!

대한약사회는 약국하는 약사님들에게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사라는 신분이 같기에 대한약사회에 소속 되어 있는 것이며,

약사의 직능과 자존심을 위해 같이 싸워야 하는 동일체 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사가 아니 었다면 아마도 병원내에서 일반인과 다름 없는 업무를 보거나,약을
조제하는 약사로서의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사이기에 병원내에서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고 ,처방오류가 감지 되었을 때 의
사들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또한 약에 대한 배합금기나 처방량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며,의사들이 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정보제공과 지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병원협회의 원내 외래약국설치 기도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면
서,병원 약사님들에게 까지 서명할당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역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부 약국에 근무하는 우리 약사들 또한 병협의 이런 저속한 행패에 분노가 치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오직 했겠습니까?

병원근무를 시작할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약사로서 대형병원에 근무하게 되어
나름 긍지도 생기고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 근무는 외부에 알려지기를 근무 환경이 비교적 열악하고,잡무가 많으며 야간
당직근무도 해야 하고,근무에 비해 비교적 급여도 적은 편이라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
었습니다.

또한 병원 약사는 조직생활이며 주로 입원 환자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물을 다루어야 하고, 서류작업과 같은 업무도 상당하고 주사제, 마약 등 특수 약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이직율은 높고 신입 약사 지원율은 낮고, 결국은 남은 약사님들이 이직을 하고 싶어도 대체 인력을 쉽게 구하지 못해 책임감에 이직도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이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았던 이런 기사 내용과 사실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병원약사회가 2006년 해외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에 있는 국내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근무약사님은 4,080명인데, 경영난을 이유로 반대하는 중소병원들에 밀려서 복지부는 550명을 그것도 1~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구인하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고태근 사무관에 의하면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나 일반직원을 시켜 불법조제를 하는 병원이 전국에 750곳, 병원 40%가 약사도 없이 불법조제를 일삼는 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강산병원 또한 약사 없이 불법조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9억4천만원이나 부당청구 했다가 원장 등 의사 2명과 행정처장 등 7명이 불구속 입건 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의 병원 중 약 40%가 약사도 없이 불법조제를 하고 있는데도, 대한병원 의사협회는 최근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과 함께 완전의약분업을 외치며 원내에 외래약국 설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지요?

4,080명의 약사가 필요한데도 추가약사를 증원하지 않고, 약사도 없이 조제업무를 시키거나 약사면허 달랑 한 두개 걸어 놓고 일반 직원들이 하얀가운 입고 불법조제 하는 병원들도 많다고 들었고, 심지어는 당직약사가 없어서 일반 직원들이 야간에는 불법조제를 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이렇게 귀한 병원 근무 약사님들이 병원내에서 의외로 처우 개선에 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에 야간 당직까지 서가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데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임금인상을 꺼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약사 평균 연봉 3809만원-간호사 3467만원 정도 되고,심지어는 14년 된 병원약사의 급여가 간호사 보다 적은 400만원 정도라는 기사를 본적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근무시간에 따른 편차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님들은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 자료에 의하면 월 평균347만원 이고 최근의 급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이 400만원에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퇴직금까지 일부 정산하면 한달 평균 거의 5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약사님들 병원에서 의사와 같지는 않더라도, 약사로서의 위치와 대우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힘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과감하게 처우 개선을 요구하시고,안 들어주면 파업이라도 하십시오?

요즘은 복수노조도 허용된다니 병원약사 노조를 결성하시고 결사의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약사가 필요 없다면 근무약사 하시면 되고,서울보다 지방 내려오면 병원보다 대우 좋고 공기 좋고,아니라면 오픈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방 소도시의 병원 의사들은 월 급여가 보통 1,000만원이 넘어 갑니다.거기에 의사 송윤희

감독이 만든 "하얀정글" 처럼 진료횟수와 과잉검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에 은밀한 리베이트까지 더한다면 아마도 의사들의 월수입은 최저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최근에 불거진 의사 자녀들의 무직(31)에 통장에는 현금1억원 나머지 부동산과 재산은 부모가 관리해 준다는,그리고 수억원 대의 수입차들을 몰고 서울시내에서 광란의 질주(일명 드리프트)를 하고,자녀들 중 상당수가 외국 유학이나 해외생활을 하는 최 상류층의 의사들의 생활 하고는 설령 비교가 안될지 언정,병원내의 약사의 위상이 의사들의 하수인이나,외래약국에서 근무약사들이 받는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서도,약사로서가 아닌 의사들에 종속되어 마음대로 부러먹어도 되는 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약사님들 이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약사라는 자존심을 세우고,전국 병원에 근무하시는 병원약사님들을 단체로 복수노조를 형성하여,임금과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중창구를 통해 교섭하시고 관철이 안되면 파업하십시오!

병원에 자리가 없으면 전국에 있는 약국들이 반값게 맞이할 것입니다.

옛날에 전공의들은 중환자실까지 폐쇄해 가면서 극단적인 투쟁도 했는데, 병원약사님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병원에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면 병원약사님들의 인권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약사님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을 되찾는 날까지, 병원약사님들을 우습게 아는 병원에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한 경고장을 날리시길 바랍니다.